#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트리트컬처로 물든다

## 10~11일 ACC 아시아문화광장서 '스.온.스@프린지' 개최
## 일반부·청소년부 등 35개 댄스팀…일본·태국 해외서도 참가
## 거리문화 경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전시·체험·마켓부스도

거리 예술 축제인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세계 수준의 스트리트댄스와 함께 한층 새롭게 시민을 찾아간다.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 동신대학교에서 협력하는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온.스@프린지(스온스앳프린지)'가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스.온.스@프린지'는 '스트리트댄스 온 스테이지 앳(at)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줄임말로, 스트리트댄스와 스트리트문화를 결합해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팀의 경연과 함께 다양한 거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낙서그림) 전시, 체험·마켓부스 등으로 채워진다.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경연은 사전 예선을 거친 일반부 15팀, 청소년부 20팀 등 총 35팀의 본선 무대로 10일 오후 6시 30분 막을 올린다.

일본·태국 등 다수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해 365명이 출전할 예정이며, 힙합·팝핑·왁킹·락킹 등 다양한 스트리트댄스 장르로 이뤄진 열정 가득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결선 무대는 본선 경연을 거쳐 11일 오후 6시 30분 치러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심사위원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 오사카의 대표 힙합 거장 요코이(YOKOI)와 스트리트계 전설 요시에(YOSHIE), '스맨파'로 잘 알려진 백구영, 그리고 우태를 비롯한 팝핑댄서 호진, 안무가 해니 등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다. 진행은 Mnet '스맨파 코멘터리' MC 두락이 맡는다.

시상금은 일반부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청소년부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이다.

이번 행사에선 특별한 쇼케이스도 마련된다. 지난해 대한민국에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한 '엠비셔스'(MBITIOUS)와 '와이지엑스(YGX)'가 11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지역 최초로 엠비셔스 7인의 완전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트 컬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가득하다. 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 일대에서는 플리마켓과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고, 그래피티(낙서그림) 전시도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다양한 기업 협찬도 이뤄진다. 레드불코리아는 10일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에너지 음료 '레드불'을 무료 증정하고, 레드불 미니쿠퍼 자동차를 설치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디제이(DJ) 장비 브랜드 '테크닉스(Technics)'는 이번 경연 참가자에게 티셔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스온스@프린지'는 '광주스트릿컬쳐페스타'와 연계해 진행한다. 전국 규모의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배틀 라인업'을 확장시킨 축제로, 9~ 11일 사흘간 ACC 예술극장 등 일원에서 열린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스트리트댄스로 새롭게 선보이는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열정 가득하고 흥이 넘치는 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년 대표 거리예술인 '스트리트댄스'를 주제로 했다"며 "'스온스@프린지'를 통해 광주가 세계를 대표하는 스트리트댄스의 메카로 발돋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사회 화두를 예술로 표현하는 '거리예술축제' 본연의 색깔로 돌아가고자,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 공연물을 엄선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행사 문의는 인스타그램 '광주프린지페스티벌 (gwangju_fringefestival)'이나 사무국(062-670-7983~4)으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해저터널 바닷물 주입

일본이 올여름 무렵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준비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지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TV는 5일 도쿄전력을 인용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 방송에 나와 터널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해수를 채우는 데 "단순 계산으로는 20시간이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6일에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의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를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워놓는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 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미 굴착 작업을 완료하고 최근에는 터널 안에 남아있던 각종 기기 등을 치우면서 자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의한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절차 역시 이날로 종료됐다.

방송은 관련 공사가 이달 말 완료될 전망이라며 결국 설비 측면에서의 준비는 정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로 올여름 무렵을 예고하고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왔다.

/연합뉴스

# 전남대병원 8일부터 3일간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

세계 심장학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심장중재술을 교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광주에서 열린다. 전남대병원은 8일부터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1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Gwangju International Cardiology Symposium·GICS)을 개최한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ICS는 국내·외 심장전문가들이 강연 및 증례 발표 등을 통해 최신 지견을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체외막산소공급 시술, 좌심방이 폐색술을 포함한 심장중재술을 비디오 녹화 및 생중계 통해 진행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급성심근경색증 등록 공동 연구인 KAMIR-JAMIR 심포지엄, Korea-Mayo 심포지엄, Korea-London 심포지엄GICS-China 심포지엄, GICS-TAMIS 심포지엄 등이 동시에 열리며 미국, 영국, 중국, 일본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7개국에서 92명의 심장학자들이 초청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및 의과대학 교수·전공의·간호사·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심장학 관계자 총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 수국 천지 신안 도초도 행안부 '가고 싶은 여름섬'

신안 도초도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꼽혔다.

행안부는 도초도를 비롯, 대·소이작도(인천 옹진군), 삽시도(충남 보령시),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 울릉도(경북 울릉군) 등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선정해 6일 발표했다.

도초도는 수국공원을 떠올릴 정도로 수국이 유명하다. 올해도 16일부터 수국축제가 열린다. 바다 시금치 섬초로도 알려진 섬이다.

수국공원에는 13ha(약 4만평)에 걸쳐 형형색색의 다품종 수국 200만 송이, 애기동백 등 3000주 이상의 수목이 심겨 있다.

도초도 발매리 바다 위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산어보 촬영지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속에서 유배 온 정약전(설경구분)이 머물며 자산어보를 집필한 곳이다. 초가집 돌담이 낮게 쌓여있어 정겹게 걸을만하다. 마을 전체에 펼쳐진 팽나무숲길도 인생샷을 건질 핫플레이스다.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목해수욕장도 여름철 피서객들이 끊이질 않는 명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8월말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택시요금 7월부터 인상…기본요금 1000원 올라

## 모범·대형 택시는 1200원 인상
## 시간·거리·할증은 현행 유지
## "서비스 개선 계기 되도록 최선"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4300원으로 오른다. 광주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1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1000원(30.3%) 오른 4300원,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1200원(30.8%) 오른 5100원으로 확정됐다.

단위 요금이 오르는 시간(32초)과 거리(134m) 기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 요금은 그대로다.

앞서 광주 법인·개인택시 조합은 중형택시 4800원, 모범·대형택시 5600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업계, 시민,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인상안을 보고하고 열흘가량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대시민 택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승차 거부와 장거리 추가 요금 요구,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돈국 광주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의 인상폭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